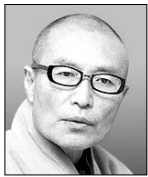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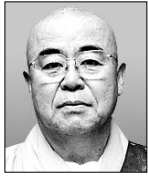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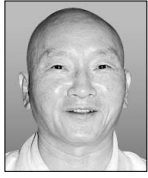
일주문



환경위 전체회의 개최
조계종 환경위원장 지원 스님(사회부장)은 1월 31일 오후 4시 서울 한국일보 송년클럽에서 환경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신촌 봉원사 제38세 주지에
육천법음대 학장 구해 스님은 지난 12월 29일 열린 연방 봉원사 대중공사에서 신촌 봉원사 제 38세 주지로 선출됐다.



어린이 동계수련법회
천안불교사암연합회장 대원 스님은 1월 7~9일 천안 부루나어린이집 등지에서 어린이 동계수련법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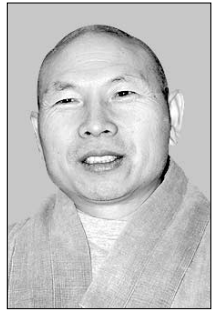


한나라당 정책운영위 의장에
불자 국회의원 모인인 정각회 부회장 박세일 의원이 1월 11일 한나라당 신임 정책운영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됐다.

“건학이념·정체성 확립 노력”

동국대 신임 정각원장 진월 스님

“단순히 교내 법당의 책임자가 아닌 종합대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인 진월 스님(사진)이 1월 10일 동국대 제9대 정각원장에 임명됐다. 교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조계종 총림대학의 정각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대학정관에 정각원장 자격을 기존 조원뿐만 아니라 승랍 30년 이상의 조계종 스님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면서 상당부분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진월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이 침체된 데는 외부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내부의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개교 100주년을 앞둔 동국대의 발전에 정각원장으로서 다양한 외부인사들의 참여를 유도해 동국대와 불교대학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1984년 동국대 선편과를 졸업한 진월 스님은 68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미국 하와이 대학에서 종교학 석사, 버클리 대학에서 불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으로 종단의 해외포교에 열중해 왔다. 조종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대부사업 문화·생필품 병행”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새 본부장 명진 스님

“최근에 진행된 신계사 복원 사업과 같은 문화교류사업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생필품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1월 13일자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에 임명된 명진 스님(본은사 선원장·사진)은 “의식주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2004년은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가 가장 냉각된 시기였다”고 평가한 스님은 “앞으로는 조계종과 조불련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궁극적으로 남북 불교지도자들의 상호방문까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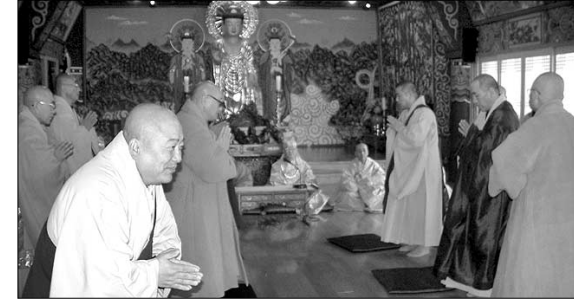
2000년 6월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창립 당시부터 상임집행위원장과 부분부장을 맡아 왔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상월대조사 94회 탄신봉축법요식



천대종(총무원장 윤덕)은 1월 8일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2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상월원각 대조사 제 94회 탄신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 총무원장 윤덕, 종회의장 정산, 감사원장 도정 스님과 참여불교계 가연대 박광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동종 용천사서 신년하례법회



조동종(총무원장 심홍)은 종정 지명 스님 등 40여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1월 6일 서울 용천사에서 신년하례법회 및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스님들은 최근 일어난 동남아 지진 및 해일 피해 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것에 적극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본원종 서림사서 신년하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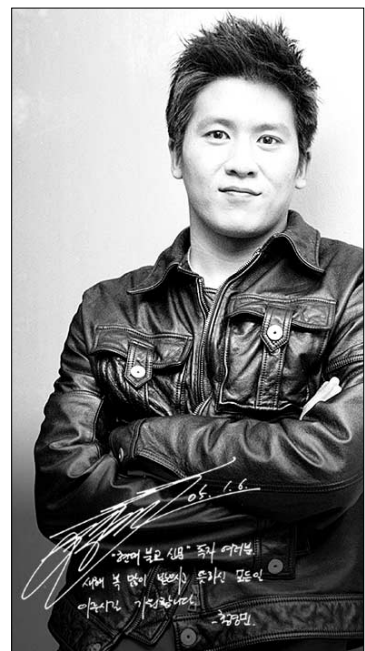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1월 7일 양평 서림사에서 2005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원로의원 범용, 종회의장 대은, 포교원장 대봉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종정 무구 스님은 “올 한해에도 부지런히 수행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원용종 원용사서 시무식



원용종(총무원장 법륜)시무식이 1월 8일 서울 원용사에서 4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용종은 이날 3월 26일 종단 창종기념법회, 6월 25일 수륙대제, 7월 22일 중정예하 탄신일, 10월 현해탄 수륙대제 등을 올해 종단행사로 실시키로 했다.



“전국 사찰 공연 투어하고 싶어요” 불자가수 홍경민 6집 내고 불심 up!

“언젠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전국 사찰을 순회하며 공연하고 싶습니다.” 2년 2개월간 군복무를 마치고 우리 곁에 돌아온 불자가수 홍경민(사진)이 최근 6집 앨범 ‘Listen & Repeat’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앨범은 군 입대 전 한국의 ‘리키 마틴’으로 불리며 활약하던 과거 댄스 음악의 틀에서 벗어나 록 음악을 가미한 곡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홍경민은 “2년여 동안의 군 생활은 극한상황에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이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한층 성숙한 가수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군 복무 중 힘든 훈련을 앞두고 있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면 어머니께서 주신 염주를 돌리며 마음을 가다듬었고 알기 쉽게 부처님 말씀을 담은 <법구경>을 여러 번 탐독했다”며 “무엇보다 무사히 제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위해 매일 새벽 부처님께 기도 드린 어머니의 지극한 불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SBS 인기가요와 케이블TV 음악방송 m-net 등 공중파와 케이블 TV

를 오가며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끼와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홍경민은 왕성한 가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름 시즌을 겨냥한 다음 앨범도 서서히 준비 중이다. 그는 또 당분간은 가수활동에만 매진하겠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TV드라마와 영화에도 출연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홍경민은 국군방송 홍보대사로 임명돼 1월 18일 서울 용산동 국방홍보원에서 위촉식을 갖고 앞으로 1년간 국방부 관련 행사 등 각종 군 관련 홍보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노병철 기자 sasman@buddhapia.com

전국에 계시는 대사·현인·기사·이인 각위께



제가 「六壬」 하나 들고 세상에 나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육임대정비법」 ① 25만5천원짜리부터 ② 33만5천원짜리 ③ 1백33만원짜리 ④ 1백53만원짜리 ⑤ 2백53만원짜리를 써서 교환해 드린 기간도 5년입니다.

제가 책을 쓴다고 알려 드리면, 저를 신뢰하시고 큰 돈을 미리 선 입금하신 다음 책을 나올 때까지 넉넉하게 기다려 주신 그 큰 공덕에 힘입어 저의 소명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육임대정비법」 시리즈 마지막 판 「육임대계전서」를 60갑자 60권으로 써서 매일 일일별로 1권씩 꺼내 보겠끔 만들었습니다. 책 끄기는 교과서만 하게 즐겁고, 흰 바탕에 검정 활자제로 큼직큼직하게 처리해 기존의 책들보다 시원스럽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특히 물어오는 항목을 30개로 늘리고, 이 30개 각 항목마다 세부적인 소항목을 17개~3개씩 부연시켜, 종이는 육임, 어렵다는 육임 공부만 전혀 하지 않아도 마친 없이 확실한 말씀이 되도록,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존의 불편한 부분들을 말씀이 해소 시켰습니다.

아주 쉽게 잘 나왔습니다. 또한 「귀신침범」, 「발미·부정」, 「산소탈」을 명시하고 그 비법법을 자세히 적시해 놓아 「효과 있다 택일하라」, 「효과 없다 기다리라」고 써놓은 것만 보면 어떤 수법을 행해도 안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선입금하신 분들에게는 지난 1.12일까지 3차에 걸쳐 배분을 끝냈고, 「육임대정비법수정보완본(적색)」, 교환신청도 마감하여 발송해 드렸습니다. 한정본 500질 (1질 60권)만 발간했습니다.

제가 쓴 책의 정확도를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기회를 통해 「평생의 반려, 가 될 이 보서」를 크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효사찰인전역집II」, CD 역시 명품으로 나왔습니다. 컴퓨터를 기본만 하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육임대계전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육임활용서를 못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방대학원대학교의 초빙교수로써 석·박사 과정, 연구과정, 문화교육원과정의 육임강의를 맡아 육임학(역학)의 제도권 연착륙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는 1월 20일 전까지 입금하시는 분께는 입금 순서대로 전국 어디든 「한진택배」로 주문 다음날 까지 도착시켜 드리겠습니다. 鼓子曉史 배상

●문의전화: (02)993-8680 (담당: 이명옥) ●가 격: 400만원 (카드결제·휴폐지 전자결제도 가능합니다)

●입금계좌: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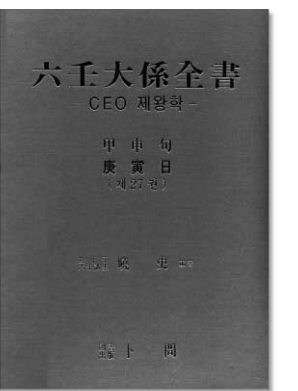
●견본열람: www.taotemple.net (한국육임학회) 「서적·비디오·CD」란을 클릭 하십시오.

책 중 각 일별 각 시간별 각 곡수에 적시된 30개 평단항목의 부연항목 일부 내용

Table with 2 columns: Question (e.g., '본 초사(初辭) : 가장 먼저 할 적중되는 말은?') and Answer (e.g., '이사부터 하십시오. 살집이 못 됩니다. 관재·소송이 발생하겠어!')

Table with 2 columns: Question (e.g., '① 어떤 사업이 좋은가?') and Answer (e.g., '고, 연수 여다. 만은 성공한다.')

Table with 2 columns: Question (e.g., '① 소송 승패 여부') and Answer (e.g., '원고가 승소한다. 고난이 있다. 화해가 걸려 있다.')



“시중포교의 지혜로운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득도후 평생 법 공부만 열렬했던 소승이 시정(市井) 포교 인연을 맺다보니,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제반 애로가 쌓여 고심하던 차, 「육임대계전서」와 「효사찰인전역집」, CD를 큰맘 먹고 구입했는데, 과연 듣던 대로 효과가 커서 포교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학을 전혀 몰랐던 소승이, 이 책과 CD와 인연이 된 뒤로 신도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귀의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은 시중포교의 애로를 겪는 본인이 아닌 절실한 문제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소승이 이 「명품」을 굳이 소개 하는 것은, 저처럼 市中포교의 현장에서 어려운 경험에 당황하고 계시지 모르는 寺門들께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저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특히 무소일로 왔는지? 어떤 사정인지? 무슨 귀신침범인지? 부정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 산소탈인지? 천도시식의 효과가 있는지, 없었는지? 그 해소방법까지 자세하고 영험하게 적혀있어 가히 백미 이더군요. 참 좋습니다.

생소한 것들을 알기할라, 시간날라, 대중과 섞여 일반공부, 특히 역학을 공부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감안할 때, 이 「책」과 「CD」는 오히려 절망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아주 시원한 방편입니다!

나무시장보살

은천사 주지象山 弘誓 011-341-7540

■ 배본 : 설치신청

- 부산 051-756-0141 ● 광주 062-571-9075 ● 대전 042-223-8680 ● 대구 053-624-8680 ● 전주 063-284-7714 ● 인천 011-729-6011 ● 춘천 033-682-4653 ● 제주 064-732-0335 ● 서울 02-993-8680

* 위 곳에 주문하시면 배본 : 설치는 물론 활용방법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육임무료강의를 각 지역 학당에서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초사

■ 사업사

■ 질병사

■ 전60권 매일 1권씩